

유통/의류/화장품

Analyst **오린아**
02. 3779-0053
lina.oh@etrade.co.kr

유통

아마존 3월 한국 진출 예정 보도 관련 코멘트

아마존 3월 한국 진출 예정 보도 관련 코멘트

2월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3월 중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 업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전해짐. 아마존은 국내 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ICT 업계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을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동아일보에 의해 보도됨.

Fact: 아마존, 3월 한국 진출 예정 보도

-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3월 중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월 24일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 아마존이 국내 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ICT 업계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을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됨.

Implication: 물류창고 운영 가능성이 있다면 차별화 포인트

- 정황이나 시기상 현재 진출해 있는 AWS(Amazon Web Service)에 대한 집중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 아마존 Career 사이트에 현재 게시된 구인 공고 25개 중(서울 베이스 기준) AWS 관련이 22개에 달함. 나머지 3개는 모두 한국 Seller 어카운트 관리자에 대한 구인공고이나 이것은 지난해부터 올라와있던 공고로, 이것만으로 3월 진출에 무게를 실기는 어렵다고 판단.

-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부문 국내 진출에 대한 '설'은 지난 해부터 끊이지 않았음. 지금은 진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향후 언젠가 되었던 전자상거래 쪽 진출이 가시화 된다면 유통업계 특히 오픈마켓 시장에는 플레이어가 추가됨에 따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 아마존이 국내 기존 오픈마켓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은 물류창고 운영을 통한 FBA(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라고 판단함. 아마존은 이미 국내 해외직구족들이 구매해 간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를 기반으로 인기있는 해외 제품들을 아마존이 직매입하거나 해외 셀러들을 유치해, 한국 내 물류창고를 통해 판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참고로 2000년에 기진출한 일본의 경우 라쿠텐과 같은 형태의 일반 오픈마켓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진출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그룹의 압도적인 M/S로 인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림1 아마존의 Fulfillment By Amazon(FBA)



그림2 아마존 Fulfillment Center 전경



자료: Complextech,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아마존 Fulfillment Center 전경



자료: Complextech,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표1 아마존 FBA Workflow

FBA Workflow

1. 판매자가 판매할 상품을 Fulfillment Center로 보냄

- 판매자가 보낸 상품을 Seller Central에 업데이트 하면 아마존은 확인 후 재고를 라벨 처리하여 데이터 저장 후 창고에 보관
- 판매자는 추후 고객이 상품 구매 시 이용할 배송 서비스 업체 지정. 아마존 자체 배송 서비스나 판매자가 원하는 배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선택

2. 아마존이 상품을 보관

- 아마존이 상품 확인 후 정보를 스캔하여 보관, 실시간 재고는 판매자들이 tracking system을 통해 확인 가능

3. 고객이 주문

- 아마존닷컴으로 들어온 주문 및 다른 웹사이트나 플랫폼을 통한 주문에 관해 판매자가 요청하면 확인
- 35달러가 넘는 제품은 배송비 무료 적용,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주문했을 때는 배송 옵션 업그레이드 가능

4. 아마존이 상품을 꺼내(Pick) 포장(Pack)

- 아마존이 물류창고 안의 상품 위치를 스캔하여(web-to-warehouse 시스템으로 자동 연결), 빠르게 물건을 픽업하고 분류
- 판매자의 여러 가지 상품 묶음배송 가능

5. 아마존, 상품을 배송

- 아마존이 고객이 선택한 배송 옵션으로(2 Day, Ground Shipping) 상품을 배송하고 트래킹(tracking)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
- 진행중인 주문에 대해서 판매자가 아닌 아마존이 Amazon.com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

자료: Amazon.com,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N.R. (Not Rated)	20% 이상 기대 ~20% ~ 20% 기대 ~20% 이하 기대 등급보류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 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